

CHAPTER2. <2021학년도 6월 + 9월 문학편>

<1> 운문 파트

운문 파트는 결국

- (1) 제대로 읽고,
- (2) 제대로 머릿속에 정리하고,
- (3) 제대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보기>를 먼저 읽어서 평가원의 의도를 파악하고(<보기>는 평가원의 응집적 의도입니다.), 지문을 문장 단위로 읽어 나가며, 서술어와 그 술어에 맞는 주어에 집중하며, 수식어인 관형어, 부사어를 보되, 지나치게 민감하게 보기보다는 눈에 띄면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어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가며 읽으세요.('잘생긴 유대종이 난 싫어. 배 나온 유대종이 난 좋아.'에서 유대종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잘생긴'도 '배 나온'도 아니고, '좋아, 싫어'라는 것을 명심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문제의 정답' 선지를 바라볼 때는 지문 및 <보기>와의 확실한 대척점, 반대 지점을 찾으려 노력하시고, 그렇게 찾은 확정적 답을 토대로 나머지 적절한 선지들을 해석에 참여케 하여 평가원적 해석력을 늘려 가시길 바랍니다. 선지는 평가원의 해석입니다.

선지는 최대한 사실 관계 부분에서 민감하게 접근할 것. 즉, 해당 지문과 선지 간의 주술 관계 파악(지문의 주술관계와 선지의 주술관계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깐요.), 관형절 판단(가령 '낡고 해진 옷'이라고 선지에 나와 있으면 옷이 낡고 해졌는지 확인. 실제 지문에는 머리가 헝크러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석(날개)은 언제나 확인할 것(동편제가 뭘지 설명하고 있으면 가서 찾아 봐야죠), 부사어에 집중할 것(공적을 서로 평가하는지, 각자 평가하는지), 보조사에 집중할 것 등이 중요합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화자 혹은 대상이 직면한 상황(주로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과,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을 머릿속으로라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상황, 정서, 태도의 반대 지점으로 선지를 구성하여, 이의제기 논란이 없도록 정답을 만드는 것이 평가원의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문제를 풀 때는, <보기>먼저 읽고, 지문을 읽고, 표현상의 특징은 나중에 막판 재확인으로 푸시고, 문맥으로 추론하는 문제, 상황-정서-태도를 묻는 문제 먼저 푸시고, <보기> 문제를 풀 때는 선지를 분절하여, 윗글과 연관 있는 선지인지, <보기>와 연관 있는 선지인지, 앞뒤 연결이 잘 되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6평 현대 운문부터 보도록 합시다. 한번 풀어 봐요.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6평]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A]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짜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끈이곤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전될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뽕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웃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씨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 ①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군.
- ②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주는군.
- ③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군.

자, 이제 현대 운문 분석해 봅시다.

우선 (가)의 <보기>를 찾았는데 없다. <보기>가 없다면 지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 작품을 접근해 보자.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1학년도 6평]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A]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셋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B]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1연의 화자는 우선 부정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 화자가 선택한 1연의 시어는 '죽은 나무, 못 박힘, 긴 밤, 운다.' 등이다. 결국 그가 바라본 세계는 다소 참담해 보인다. 딱 이 정도만 읽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2연에서 상황의 전환이 발생한다. '아침'이 되었고, 종소리가 들리며, 1연에 밤이었던, 즉 2연에 따르면 어둠이었던 과거가 3연의 '햇살'과 더불어 밝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가 선택하는 시어들은 '피리', '향기로운 싸릿순' 등의 밝은 이미지의 시어들이다.

마지막 연을 보니 수미상관이다. 보니, 1연의 무엇이 바로 아침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나 아직 무엇인가를 기다린

다는 것은 그 아침과는 다른 더 나은 무엇이다. 이미 이루어진 아침이기에, 마지막 연에 '무엇'은 아침은 아닐 것이다. 더 나은 미래 지향적 자세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23번부터 보자.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1학년도 6평]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중의적 표현이다. 여기에서의 문제가 problem이라면, 당연히 [B]의 기다림의 대상일 이유가 없다. EBS는 그렇게 해설을 해 두었다. 하지만 하나 더 살펴보자. 만약 울게 한 issue라고 해 보자. 그렇다면, 문제의 의도는 [A]에서 간구한 것은 바로 기다렸던 아침이요, [B]에서 간구하던 것은 아침과는 다른 또 다른 무언가가 된다. 사실 EBS 연계 공부를 한 사람은 분명 빠르게 [A]에서 기다렸던 것은 광복, [B]에서 기다린 것은 광복 이후의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온전한 조국을 꿈꾼 것이라는 배경이 있으면 정말 손쉽게 ①번 선지가 적절하므로 이 선지가 해당 문제의 오답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학습이 없더라도 부정에서 긍정의 상황으로 변화하였고, 그 상황에서의 또 다른 기대라는 것은 긍정 상황을 넘어선 또 다른 무언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시험장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어지간하면 EBS 연계 강의를 꼭 들도록 하자. 최근 몇 년 간의 연계 문학과 관련해서 평가원은 좀 안다는 전제 하에 시험 문제를 내는 듯하다. 이 선지는 매력적 오답!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대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내가 분명히 6평 전에, '자세'의 차이까지 정리해 주었을 것이다. OVS 가서 4월에 올린 내 강의를 보도록 해라. 자세의 대비까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상황인 1연과 지향적 자세를 설명한 마지막 연은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상황의 변화(차이)를 묻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셋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셋별더러 '숨으라'고 하므로 이를 현재 화자의 지향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둠 속에서 존버하고 있었던 너, 수고했어. 이제 내가 할게.' 이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고 OVS에서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나 이걸 약간 해석이 가미된 것이고, 실전적 해석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EBS 학습의 목적은 바로 이런 것들에 능수능란하게 대처함이 아닌가? 기출은 기출답게 풀되 연계로 얻을 버프는 좀 얻을 필요가 있겠죠. 나아가 지향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화자가 정말 지향하는 것은 마지막 연에 나오는 '무엇'

에 대한 기다림이다. 향기로운 짜릿순 자체는 긍정의 시어이지만 그것들을 서로 사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뿐이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 [A]의 간구는 부정적 상황이 바뀌길 소망한 것이고, 마지막 연의 '노래'는 그 이후의 것이므로 무엇을 기다리는 자세와 연관이 있다.

잠깐! 여기서 스톱. 이 문제가 어려웠던 네가 틀린 만한 문제를 가지고 와 보았다.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학년도 9월)

(가) 노래가 낮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멎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내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염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단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원주(原註)] 사소: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

(다) 사립을 짓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
원근 산천이 홍일(紅日)을 띄웠으니,
만경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낙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지취(志趣)를 취함이라.
낙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내 낙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평생의 굶던 입을 천 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어,
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둘 데 없어,

홍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실없이 드렸은들,
고기도 상관 앓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홍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라.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값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성세(盛世)에 한민(閭民)* 되어 너 좃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 안조원, 「만언사」 -

- * 조대: 낚시를 하는 곳.
- * 은린옥척: 모양이 좋고 큰 물고기.
- * 한민: 한가로운 백성.

29. (가)와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다)	시어의 의미와 기능
①	바닷가	조대	화자가 현재 머무는 장소
②	산새	은린옥척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③	개벽	성세	화자의 처지가 변화하는 계기
④	물낫바닥	그림자	화자가 수행하는 자기 성찰의 매개물
⑤	아이	벗님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답이 몇 번 같습니까 휴먼? 혹시 ①, ③번을 쓰셨나? 다 페이지에 걸린 거죠. 바닷가는 말이 머무는 곳이고, 개벽은 꽃이 하는 것이고 화자와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이는 화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니 화자가 부러워할 리가 없고.

그렇다면 답은 ②, ④번 중에 하나인데, 술어를 봐봐. 산새에게 입맛을 잃었다고 하네. 역시 서술어에 집중하라고 했지. 2021학년도 6평에서 '셋별아, 숨으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지향이라고 할 수 없겠지. 그리고 은린옥척을 잡는, 즉 고기잡이는 나의 뜻이 아니라잖아. 그렇다면 답은 ②번. 그림자를 통해 성찰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보고 백구가 놀랐기에 백구를 진정시키는 것뿐. 6평 23번 틀린 놈은 2009학년도 9평도 틀리기 쉽습니다. 화자, 대상 구분은 기본이며, 지향점 파악 또한 기본입니다. 서술어 확인도 기본 중 기본!

하나 더 풀자. 틀렸을 테니.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0학년도 수능)

(가)
동녘 두던 빛기 크나큰 너븐 들히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혼 빗치 되어 있다
중양이 거의로다 내노리 흐자스라
불근 게 여물고 높은 돛기슬저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슬소냐

전가(田家) 흥미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살여흘 긴 몰래에 밤불이 불가지니
 ㉠ 게 잡는 아히들이그물 을 훑터 잇고
 호두포* 엔 구비에 아적물이 미러오니
 ㉡ 뚝든 비 애내성(歛乃聲)*이 고기 뜨는 당시로다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라

[A]

(중략)

어와 이 청경(淸景) 감시 이실 거시런들
 적막히다든문애 내 분으로 드러오라
 사조(私照)* 업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 모재(茅齋)*에 빗췌 빗치 옥루(玉樓)라 다룰소냐
 청준(淸樽)을 밧췌 열고 큰 잔의 ㄱ둑 브어
 ㉣ 죽엽(竹葉) ㄱ는 술룰 들빋 조차 거후로니
 표연흥 일흥(逸興)이 저기면 놀리로다
 이적선(李謫仙) 이려호야 들을 보고 밧치닷다
 춘하추동에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애 완상이 새로오니
 ㉤ 몸이 한가흐나 귀 눈은 겨룰 업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 공명은 계륜이나 다룰소냐
 ㉥ 강호 어조(魚鳥)애 새 밧세 겁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섯기엿다
 초당연월(草堂煙月)의 시름업시 누워 이서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장일취(長日醉)를 원(願)호노라
 이 몸이 이러구름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 * 호두포: 예산현의 무한천 하류.
- * 애내성: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
- * 사조: 사사로이 비춤.
- * 모재: 띠로 지붕을 이어 지은 집.
- * 옥당금마: 관직 생활.
- * 몽혼: 꿈.

22.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7세기 가사 「월선헌십육경가」는 월선헌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애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군.
-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흐자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불근 계'와 살진 '높은 돛'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
-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불이 불가지니'와 '아적물이 미러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군.
- ⑤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라'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자, 답 나왔니? ⑤번이지? <보기>에 따르면 화자의 지향은 전원으로서의 자연이 주는 유유자적 및 풍족감이야. 조선 후기 때의 자연은 분명 전원적 요소가 있다고 제가 이때 강의를 했습니다만 증명할 강제가 남아있지 않네요. (이적으로 폭파당함) 아무튼, 여기서 풍경도 좋고, 생활이 괴롭지 않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⑤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 즉 정답입니다. 만경 황운이 곡식을 비유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화자의 지향점과 ⑤는 거리가 멀다 잊지 마시고!

자, 이제 (나) 관련 작품 <보기>를 봅시다. <보기>는 뻥 세계 읽도록 하자. 참고로, (가)는 주로 아는 작품, (나)는 학생들이 모를 만한 작품을 내어주면서 (나)에 대해 담백하게 읽고 <보기>에 맞게 사고할 수 있는지를 내고 있습니다.

< 보 기 >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도시를 비판하는 것이다. 가로수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무엇을 비판하는지, 무엇을 성찰하는지 평가원은 항상 그러한 디테일을 묻는다. 이걸 똑바로 안 본 녀석은 9월 평가원 현대시 어려워웠을 게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비판의 사유는 도구적 가치 중심이겠군.)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방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치욕 속에서 피어난 꽃을 방어적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화자 역시 동일시)

이제 (나)를 읽어 봅시다.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읽으세요.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방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보기>에서 언급한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것을 방어법이라고 한 것이군)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끈이끈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나도 = 도

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한 갖는 동일시)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그래서 청유문, 악착같은 적응)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화자와 동일시)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뽕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나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제시)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열악한 상황과 고통 제시)
치욕으로 푸르다 (그러나 적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언급.
 <보기>를 통해서, '서른 몇 이후'라는 워딩을 통해서 화자 또한 동일시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2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1학년도 6평]

— < 보 기 > —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 ① '들뜬 뿌리'는 /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군.
 :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에서 조사의 사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청유문으로 썼다는 것은 <보기>의 관점에서 볼 때 동질감으로 볼 수 있다. 조사와 어미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낸 것이다.
- ②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주는군.
 : '내성이 생긴'을 <보기>와 더불어 볼 때 우리는 적응으로 간주할 수 있겠지.
- ③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내고 있군.
 : <보기>의 관점에 따라 삭막한 환경일 수 있다.
- ④ '신경증과 불면증'은 /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디 내

야 할 고통을 보여 주고 있군.
 :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은 도시의 특수성이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것이 신경증, 불면증이다. 그러므로 적절하다.
 ⑤ '**치욕으로 푸르다**'는 /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군.**
 : <보기>를 다시 보자. **비판의 대상이 도시이지 가로수 나무가 아니다. 오히려 화자는 가로수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즉, 무엇에 대한 비판인지는 꼭 따져보자. 정답!**

잠깐! 여기서 스톱. 넌 아마 맞았다고 좋아했겠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 봐. 아, 틀렸어도 풀어.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학년도 9월]

「여보 장모! 춘향이냐 좀 보아야제?」
 [A]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 리까?”
 향단이 여짜오되,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 바라를 치거든 가사이다.”
 이때 마침 바라를 텅텅 치는구나. 향단이는 미음상 이고 등롱 들고 어사또는 뒤를 따라 옥문간 당도하니 인적이 고요하고 사정에도 간곳없네.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관(金冠)이요 몸에는 홍삼(紅衫)이라. 상사일념(相思一念) 끝에 만단정회(萬端情懷)하는 차라,
 “춘향아.” 부른들 대답이나 있을쏘냐. 어사또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 보소.”
 “모르는 말씀이오. 예서 동헌이 마주치는데, 소리가 크게 나면 사또 염문(廉問)할 것이니, 잠깐 지체하옵소서.”
 “무어 어때, 염문이 무엇인고? 내가 부를게 가만있소!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며,
 「“허허,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하
 [B] 다.”
 어사또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
 “왔단 말을 하게 되면 기절담락(氣絶膽落)할 것이니, 가만히 계시옵소서.”
 춘향이 저의 모친 음성 듣고 깜짝 놀라,
 「“어머니, 어찌 와 계시오? 몹쓸 딸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
 [C] 방(天方地方) 다니다가 낙상(落傷)하기 쉽소. 이홀랑은 오실라 마옵소서.”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리어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그저 왔다.”
 “갑갑하여 나 죽겠소! 일러 주오. 꿈 가운데 입을 만나 만단정회하였더니,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단 소식 왔소? 벼슬 띠고 내려온단 노문(路文) 왔소? 애고, 답답하여라!”
 [D]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 내려왔다!”
 “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에 보던 입을 생시에 분단 말가?”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색하며,
 “허허,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상사불견(相思不見) 그린 입을 이리 쉬이 만날쏜가? 이제 죽어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박명하다, 나의 모녀. 서방님 이별 후에 ㉠ 자나 누우나 입 그리워 일구월심(日久月深) 한(恨)일러니, 이내 신세 이리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니, 날 살리려 와계시오?”

한참 이리 반기다가 임의 형상 자세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라.

[E]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설운 마음 없소마는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요?”

“오냐 춘향아, 설워 마라. 인명이 재천인데 설만들 죽을쏘냐?” 춘향이 저의 모친 불러,

“한양성 서방님을 칠 년의 큰 가뭄에 백성들이 비 기다린들 나와 같이 자진(自盡)턴가. 심은 나무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하릴없이 되었구나. 어머님,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중략) 만수 운환(漫垂雲鬢) 흐트러진 머리 이렇저렇 걷어 엮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매 맞아 죽거들랑, 샴군인 척 달려들어 둘러엮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 부용당(芙蓉堂)의 적막하고 요적한 데 누어 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殮襲)하되, 나의 혼백 위로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가, 서방님 귀히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지도 둘라 말고 육진장포(六鎭長布) 다시 염하여 조출한 상여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 제, 앞 남산 뒤 남산 다 버리고 한양으로 올라다가 ㉢ 선산(先山)밭치에 묻어 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守節冤死)* 춘향지묘(春香之墓)’라 여덟 자만 새겨 주오. 망부석이 아니 될까. 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다시 오련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신원(伸冤)*이나 하여 주오. 애고 애고, 내 신세야.”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 수절원사 : 절개를 지키다 원통하게 죽음.

* 신원 :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

판 의식이 투영된 공간이라 할 수 있어.

답 찾았어? 답이 잘 안 보이죠.

비판은 맞지. 근데 무엇에 대한 비판이지? 정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관탈민녀(관에서 백성의 여인을 겁탈하는)하는, 억울하게 죽게 하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잖아. 정절을 강요하는 사회를 춘향이 비판한 적이 없어. 답은 ⑤번. 서방님이 귀히 되어 선산에 묻어달라는 것을 볼 때 귀히 될 때 가능한 일이 선산에 묻히는 것이고 그럴 때 자신의 한이 풀어짐과 동시에, 그러한 한의 풀어짐이 보상이고, 그것이 죽어서의 신분 상승일 수도 있지. ③, ④번이 좀 헛갈렸을 거야. 그래도 ⑤번이 완벽하게 무엇에 대한 비판인지 따져 보는 상황에서 틀려버린 선지이잖아. 완벽하게. 이런 문제도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

자, 이제 [2021학년도 6평] 마지막 22번 보자.

21. <보기>를 참고하여 ㉠, ㉡에 대해 토의하였다.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성의 정절 및 신분 상승의 문제를 다루면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은 춘향과 어사또의 사랑이 싹튼 곳이니까 두 사람의 추억이 어린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② ㉠을 춘향의 혼백이 위로받는 장소로 본다면 춘향이 어사또의 사랑을 다시 확인받고자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③ ㉡은 수절원사라는 표현으로 보아 춘향의 정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④ ㉡은 춘향의 한이 풀어지는 장소이자 신분 상승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⑤ ㉡은 춘향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춘향의 비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가)의 계절의 변화도 명확하지 않고(밤에서 아침으로 이동하긴 하지만 이것을 계절의 변화라고 하기는 어렵다.), (나) 역시 고정된 대상(나무)에 초점화가 되었기에 공간의 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②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가)의 화자의 시상의 표현 목적이 자연의 위대함은 아니고, (나)도 자연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지.
- ③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가)에서 명령형 어조는 '숨으라', '사양하라' 등이 있으며, 명령문 자체가 행동 권유의 속성을 지녔다. 나아가 (나)는 '푸르다', '꽃이 피었다.', '~한 것이다.' 등의 추측형이 아닌 진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타당하다. 정답!
- ④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의인화된 청자는, '나무야, 풀아, 먼지야' 등 인간이 아닌 대상을 소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터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 오답이다.
- ⑤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나)에 도치는 마지막 부분 '참을 수 없다. 나무는'에 있지만 그것을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라기보다는 견디기 힘든 현 상황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가)에서는 도치가 없다.

자, 이제 9평 현대 운문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제를 풀고!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훈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뉘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울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열고.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와 계기가 형성된다.
-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④ ㉣의 ‘호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⑤ ㉤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자, 이제 <보기>를 통해 관점을 잡아 보자.

< 보 기 >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인 맥락의 이야기인데, 개인 : 자유의 억압과 사회: 경직을 논하고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화자는 의사소통의 장에 참여하지 못했다. 만약 이 시가 자기비판이 된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일 것이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나)는 제한된 개인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하며, 이를 웃음이나 몸짓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상황에 대한 반응 정도로 보자.))

자, 이제 지문을 읽어 봅시다. 철저히 <보기> = 평가원의 시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협력해 읽자고요.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성찰. 자유라는 언어가 활자로만 존재하는군)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고개 숙이는 모습 = 위축 정도로)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경직된 사회의 모습을 고요함을 표현했군.)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그러한 사회에 대해서 치욕스러움을 느끼고 있네. 경직되어 있는 사회에서 나는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적극적 참여하지 못하는, 대응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성찰)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붙들린=제한)

㉡ 혼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불박힘)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비판, 냉소)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웃음, 몸짓이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제시됨)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제한, 경직)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제한, 경직)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제한 경직)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열고. (경직된 사회에 대한 비판. 몸짓으로, 웃음으로 대체 가능)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열거는 있는데 시대에 대해 여전히 경직되어 있다고 판단하잖아.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의감을 표현한다.
: '벗'에서 '그대'로 호칭 전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외경심으로, 즉 두렵고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 '이', '저' 등의 지시어를 썼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무브먼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지. 대상은 현재 정적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선지의 앞절은 맞아. 근데 뒤의 절이 연결이 안 되거나 틀려. 선지의 흐름을 보자.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물음의 형식으로 마무리는 되었으나, 깨달음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자조적 어조의 표현일 뿐입니다.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의 반복을 통해 심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복은 심화를 수반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정답!

자, 이제 44번을 볼까?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에 계기가 형성된다.

: 시상 전개에 계기는 시상이 펼쳐지는 촉발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가령, <한겨십팔곡>의 첫 수가 이것인데,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위 시는 충과 효를 다 지키려다가 시간이 가 버렸고, 이것이 앞으로의 시상 전개에 단서(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요 정도는 허용해 주는 게 마땅해. 그 구경거리는 바로 강물에 붙들린 배들이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 외부적인 원인(몹시 추움)으로 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인한 것이므로 선지 대책점이 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②번 선지로 손이 갔었어야 한다. 정답! 배의 발동이 언 건 그냥 배 잘못이 아니냐라고 생각한 녀석들은 평소에 니 멋대로 해석을 하는 습관이 있는 것이지. 얼어 붙는 이유는 을 겨울 몹시 춥다는 외적 상황이며.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합시다. (문학 진포배기 ch1,2 참조.)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었고, 이렇게 비웃었으면 냉소가 아니기도 어렵다. 물론 냉소의 뜻을 몰랐을 수도 있겠지. 단순히 '차갑다'라고만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몰랐다고 그것을 정답으로 쓰면 안 된다. 오히려 내가 모르는 워딩이 나와 있는 선지는 정답이 아닐 확률이 오히려 높아. 그렇다고 질서정연한 배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본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이걸 답으로 쓰려고 하지? 대책점부터 찾아. 다시 잘 봐. 확실한 반대 선지인 ②번을 잡고 가야 했었어.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얼게 만드는 것들은 강물을 얼게 하고,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므로 이들을 외부적 상황이 맞다.

⑤ ㉣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은 역시 외적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보기>를 통해서 볼 때도 스스로 자신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억압되고, 경직되는 것, 제한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점들을 포착했어야 외적인 상황으로 야기된 경직성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이거 틀린 사람들이나 헛갈린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6] (가)는 학생의 일기이고, (나)는 (가)를 쓴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6월 모평]

(가)

○월○일

환경 동아리 시간에 'PVC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특강을 통해 PVC가 플라스틱의 일종이라는 것과 정말 많은 물건이 PVC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통에도 PVC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PVC가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내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다니! 나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 친구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환경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함께 의논을 했다.

(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귀사에서 제조하는 필통에 대해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평소 귀사에서 만든 학용품을 자주 구입합니다. 그런데 ㉠ 귀사의 필통이 몸체는 PVC 재질이고, 지퍼는 철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귀사가 필통의 재질을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귀사뿐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학용품에 PVC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 우리나라 국민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많고 그 증가율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 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PVC 사용이라도 줄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 귀사에서 필통의 재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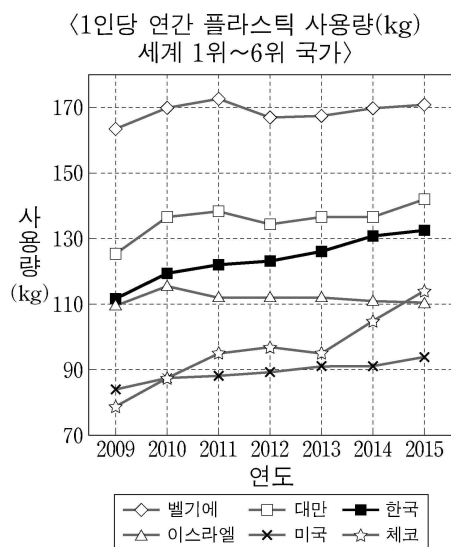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다음은 (나)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논문 자료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지만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 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플라스틱은 성분에 따라 PVC, PP, PET 등으로 나뉘는데, 염화 비닐이 주성분인 PVC는 질기고 깨지지 않아 투명 지퍼백, 필통 등에 쓰인다.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프탈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식품 용기, 학용품 등에 사용되는 PP나 음료 병 등에 주로 사용되는 PET는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다.

㉡ 통계 자료



㉢ 보고서 자료

〈재질에 따른 재활용 정도〉

재질	재활용 정도	
	용이함	어려움
플라스틱	PVC	○
	PP	○
	무색 PET	○
	유색 PET	○
철	○	

- ① ㉠: ㉡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면 필통의 지퍼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이지만 몸체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인 것이 문제라고 수정해야겠군.
- ② ㉡: ㉠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려면 PVC로 필통을 만드는 이유가 가격과 가공성 면에서 유리하며 질기기 때문일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③ ㉢: ㉣를 활용하여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려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09~2015년 기간 중 세계 3위에 해당할 만큼 많고 그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고 수정해야겠군.
- ④ ㉢: ㉠와 ㉡를 참고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려면 PVC는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첨가되는 물질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⑤ ㉣: ㉠와 ㉡를 참고하여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면 필통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유지할 경우에 재활용이 용이하고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 PP로 바꾸어 달라고 수정해야겠군.

답이 몇 번 나오지? 혹시 ㉡번이라고 생각했나? 상대방의 입장을 왜 이해하냐고? 이해할 수도 있지. 상대방의 입장이 더라도, “물론 너는 이리이러할 거야. 하지만 내 생각은 이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 대신에 답은 ㉢번이지.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누가 보아도 체코이니까. 확실하게 아닌 것. 확실한 것들을 잡아나가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야. 확실히 아닌 사실성이 그럴 수도 있는 개연성에 선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보자. 내부, 외부, 능동, 피동을 가지고 낸 이번 9평 44, 45번과 유사한 문제 유형!

자, 이제 2021학년도 9평 45번을 볼까?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한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위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나만 가지고 안 돼.’에 대한 깨달음이 (가) 시에 나와 있지 않다. <보기>를 바탕으로 볼 때,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일 뿐이다. 성찰의 내용이 틀렸다. 정답! 좀 더 디테일한 범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비판인지, 단순히 성찰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성찰인지를 철저히 보도록 하자. 앞에 춘향전 틀린 사람은 이것도 틀리기 쉽다는 말이다. 신경 쓰자 제발.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보기>의 웃음과 몸짓이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된다. 대응 방식은 좀 더 넓은 각도에서 접근해야 함을 잊지 말자. <보기>에서 웃음이나 몸짓은 대안적 대응이라는 뉘앙스로 서

술되었으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판단했어야 했다.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 고요함과 숨죽임 단어 자체의 의미에서 자유롭지 못한 뜻이 있으며 화자는 특히 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타당하다.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가)에서는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되므로, 언어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며, (나)에서도 '말'이 날아가지 못하는 상황은 2연의 '불박힌 말'들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선지는 타당했다.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가)에서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음'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판단해야 하고, (나)에서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얼어붙은 상황은 <보기>의 관점 서두에 맞게 의사소통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옛날에 사령 문제 나왔었던 것은 기억이 나나?

그 때의 <보기>입니다. 잘 읽어보면 <보기>의 주된 관점이 설움, 비애, 성찰적 자아 중심이고, 요번 9평의 <보기>들은 상황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어.

<보 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 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육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43~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6월]

(가)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세로광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

(나)

담쟁이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업혀**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새가 푸른 하늘에 **놀려** 납작하게 날고 있다

들쭉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자리를 만들고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와 누런 돌멩이 위에 **엎힌다**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 오규원, 「하늘과 돌멩이」 -

43.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②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44. 다음은 (나)에 대한 <학습 활동>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하늘과 돌맹이」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들을 바라보려고 시도한다. 각 연의 서술어에 주목하여, 이 시에 나타난 새로운 관점을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하여 탐구해 보자.				
	사물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	서술어	새로운 관점
1연	담쟁이덩굴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란다.	업혀	㉠
2연	새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	놀려	㉡
3연	들짚레	들짚레의 꽃이 떨어진다.	버리며	㉢
4연	하늘	하늘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엷힌다	㉣
5연	모래	모래가 바위 밑에 깔려 있다.	들어올려	㉤

- ① ㉠: '업혀'에 주목하면,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르며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로 볼 수 있다.
- ② ㉡: '놀려'에 주목하면, 새가 아무 제약 없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게를 견디며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 '버리며'에 주목하면, 꽃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짚레가 스스로 꽃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 '엷힌다'에 주목하면, 하늘은 땅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길에 가깝게 내려와 돌맹이 위에 닿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⑤ ㉤: '들어올려'에 주목하면, 모래는 바위 밑에 깔려 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43.

정답 : ⑤ 자연물인 '낙엽', '길'을 각각 인공물인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구겨진 넥타이'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 ① 시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의 의미와 구조를 유사하게 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② 이 작품은 '가을', '일광(日光)', '두 시' 등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다. ③ '폴-란드', '자욱-한', '호올로' 등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이 작품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

자, 분명히 어떤 학생들은 ②번 선지를 가지고, '구름이 하나, 돌팔매 하나', 유사한 형태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 물론 문장의 형태라고 보기도 어렵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위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

44. 정답 : ① '업혀'는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매달려 붙어 있는 형상이므로, '업혀' 있는 존재인 담쟁이덩굴이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공기를 누르고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담쟁이덩굴을 강인한 존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 ② 새가 하늘에 '놀려' 납작하게 되었으면서도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새가 하늘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 존재임을 나타낸다. ③ '버리며'는 꽃을 떨군

주체를 들짚레로 설정한 표현으로, 이를 통해 들짚레가 스스로 꽃을 떨어뜨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엷힌다'는 대상 사이의 접촉을 전제한 단어이므로, 하늘이 돌맹이 위에 엷힌다는 표현을 통해 하늘과 돌맹이가 떨어져 있지 않고 맞닿아 있으며 돌맹이가 있는 땅과 하늘 역시 가까이 있음을 보여준다. ⑤ 바위가 모래를 깔고 앉은 것이 아니라,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렸다는 것은 모래가 바위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44번'도 내부-외부를 가지고 정답을 낸 9평처럼, 엷힌다는 것은 피동이거든. 그러므로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 즉 능동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야 한다. 대책점 항상 잊지 말자!

〈유대중의 궁예짓〉

현대 운문 문학 작품 선정이 다소 사회 비판적이 부분들이 가미되고 있다.

부정적이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시 세계의 고결함을 노래한 백석의 두 작품을 눈 여겨 보면서,

사회 비판적인 뉘앙스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는, 최승호의 〈대설주의보〉, 최승호의 〈북어〉 등의 비연계 작품을 한번 정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 이제 6평, 9평 고전 운문을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인 골격은 현대와 유사하지만, 고전 운문은 화자가 바라보는 주변 상황이 제법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연, 충, 효, 애정, 무상(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 등이 있겠지요.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긴 가사나 연시조가 튀어나오면, ‘설의, 대구, 대비, 영탄’ 등을 ‘있나, 없나 따지기’보다는 ‘좀 어디에 있을까?’ ‘내가 못 찾지는 않았을까?’ 등으로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자. 좀 더 허용적 관점에서 움직여 보라는 것입니다. 짧은 평시조는 반복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매우 긴 가사에서는 좀 반복이나 이런 게 있을 확률이 높겠죠?

자, 이제 6평 문제부터 좀 풀어봅시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금강대 맨 우층의 선학(仙鶴)이 샷기 치니
 춘풍 옥적성(玉笛聲)의 첫잠을 깨듯던디
 호의현상*이 반공(半空)의 소소 뜨니
 서호 넷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사 **진혈대** 고터 올라 안즌마리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뵈는구나
 어와 조화옹이 현사토 현사할샤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갯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늑홀시고 망고대 외로올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사로려
천만겁(千萬劫) 지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
 어와 너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잇는가
개심대 고터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녑녀(歷歷)히 혀여 하니
 봉마다 맏쳐 잇고 굻마다 서린 괴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더 괴운 호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샤

[A]

(중략)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소** 되어세라
 천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주야의 흘너 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느냐
 음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 너머 디여
 외나모 씨근 다리 **불정대** 올라 하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에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춘춘이 버혀 내여
 실가티 플터 이셔 **베가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 이제 이셔 고터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곤 낮단 말 못 하려니

- 정철, 「관동별곡」 -

- * 호의현상 :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란 뜻으로 학을 가리킴.
- * 서호 넷 주인 : 송나라 때 서호에서 학을 자식으로 여기며 살았던 은사(隱士) 임포.
- * 동명 : 동해 바다.
- * 음애에 이온 풀 :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
- * 여산 : 당나라 시인 이백(이적선)의 시구에 나오는 중국의 명산.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금강대’에서 ‘진혈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진혈대’와 ‘불정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③ ‘개심대’에서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이 서술되고 있다.
- ④ ‘화룡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 ⑤ ‘화룡소’에서 ‘불정대’까지의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시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39.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봉우리를 ‘부용’을 꽃고 ‘백옥’을 묶은 듯한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 ② 봉우리를 ‘백옥’,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하였다.
- ③ 봉우리를 ‘동명’을 박차고 ‘북극’을 받치는 듯한 모습에 빗대어 대상의 웅장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 ④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와 같이 행위를 부각하는 대구를 통해 봉우리의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 ⑤ ‘고갯는 듯’, ‘박차는 듯’과 같이 상태나 동작을 보여주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나열을 통해 봉우리의 다채로운 면모를 표현하였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에 하늘의 이치[天理]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 ① ‘혈망봉’을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한 것이군.
- ② ‘개심대’에서 ‘더 괴운 호터 내야 인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 주는군.
- ④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베'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은,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려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군.
- ⑤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을 보여 주는군.

다 풀어봤니?
이제 분석합니다.

자, 이제 <보기>부터 보자. <보기>는 짝세개!

< 보 기 >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에 하늘의 이치[天理]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한편(앞으로 차이가 등장하겠군.)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조선 사대부)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차이의 내용을 기억하자. 사대부들은 관념적 자연(가 보지도 않고 그리워하는 뭐 그런 종류가 관념적이죠.), 관동별곡의 작가가 정철은 현실감, 사실감 또한(병렬도 대비다. 사실감과 다른 무언가가 나오겠군.)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자연에 통해 사회적 책무를 / 그리고 이상적 인간을 모색하였다. 즉 사회적 책무는 사회적, 이상적 인간은 다소 개인적인 측면에 가깝죠.)

<보기>를 분석해보니까 일단 주제가 자연이면서, 층의 요소들도 들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연이 즐기는 자연과, 본받음의 자연이 제시되어 있구나. 자연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문학 시간에 누누이 해 드렸다.

자, 이제 <보기>의 관점에서 지문을 있는 그대로 읽자.

금강대 맨 우층의 선학(仙鶴)이 샷기 치니 (학이 있네.)
 춘풍 옥적성(玉笛聲)의 첫잠을 깨듯던디 (잠에서 깬다.)
 호의현상*이 반공(半空)의 소소 뜨니 (학 떴네.)
 서호 넷 주인*을 반겨셔 넘노는 듯 (마치 임포를 반기는 듯)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사 **진혈대** 고터 올라 안즌마리 (진혈대 감)
 여산 진면목이 여괴야 다 뵈는구나 (감탄함)
 어와 조화옹이 현사토 현사할샤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감각적 묘사 : 날고 뛰고 섯고 솟았다.) **[A]**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것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동

해 바다 발로 까고, 북극을 떠받치는 듯한 산의 모습이겠
 죠. 감각적 표현. <보기>에 나와 있는 자연의 미)

놓홀시고 망고대 외로올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사로려

천만겁(千萬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

(망고대, 혈망봉은 일들을 아뢰는 존재, 굽힐 줄 모르는 존재 = 이상적 인간상)

어와 너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잇는가 (망고대, 혈망봉 베스트라는 칭찬을 설의적으로 하네)

개심대 고터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녀녀(歷歷)히 혀여 하니

봉마다 맏쳐 잇고 굻마다 서린 괴운 (봉우리에 기운이 있대)

맑거든 조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맑고 깨끗)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인재만들기 = 사회적 책무)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샤 (조물주의 뜻이 깊다.)

(중략)

그 알피 너리바회 **화룡소** 되어세라

천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주야의 흘너 내여 창해(滄海)에 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느냐 (삼일우를 내려 풀 살리고 싶다. = 사회적 책무)

음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 너머 디여

외나모 씨근 다리 **불정대** 올라 하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에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춘춘이 버혀 내여

실가터 플터 이셔 **베가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아름다운 자자연의 미 = 십이폭포의 아름다움, 사실감 있는 묘사)

이적선 이제 이셔 고터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하려니 (여산보다 이곳이 아름다움.)

- 정철, 「관동별곡」 -

- * 호의현상 :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란 뜻으로 학을 가리킴.
- * 서호 넷 주인 : 송나라 때 서호에서 학을 자식으로 여기며 살았던 은사(隱士) 임포.
- * 동명 : 동해 바다.
- * 음애에 이온 풀 :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
- * 여산 : 당나라 시인 이백(이적선)의 시구에 나오는 중국의 명산.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금강대'에서 '진혈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 이중은 긍정과 부정의 공존 등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 ② '진혈대'와 '불정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 내적 갈등이 해당 제시된 지문 부분에는 전혀 없다. 진혈대와 불정대를 굳이 뽑은 이유는 해당 부분들이 자연 속에서의 만족 그 자체인 부분이기 때문이겠지. 봉우리의 장엄함, 십이폭포의 아름다움을 위주로 서술했으니 말이다.)
- ③ '개심대'에서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이 서술되고 있다.
- : **먼저 정서가 나오면 선경후정이 되어 버려서 틀릴 것이다. 근데 개심대를 갔고, 만이천봉의 맑고 깨끗함을 제시하였고, 그것으로 인재를 만들고 싶고 조물주의 뜻이 깊다라고 얘기했기에 선경후정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④ '화룡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 :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이동은 상대적인 것이면서 확연해야 한다. 먼 구름을 바라보다가 꽃봉오리를 바라보면 그것은 확실히 원경에서 근경이겠지만 해당 지문에는 그러한 확연성이 없다.
- ⑤ '화룡소'에서 '불정대'까지의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시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 :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 등을 실제로 제시하였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렸다.

39.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봉우리를 '부용'을 꽃고 '백옥'을 묶은 듯한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 : 꽃과 유사한 것을 꽃고 백옥을 묶은 것을 확인했다면 이는 시각이 아니기도 힘들겠다. 그치? 그리고 대상인 봉우를 그림 그리듯이 직유법과 더불어 제시하였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② 봉우리를 '백옥',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하였다.
- : **봉우리를 백옥에 빗댄 것은 맞지. 그런데, 동명에 빗댄 것은 아니야. 동해 바다를 발로 찬다는데 그것을 통해 봉우리가 동해 바다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지.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하려는 목적도 없고, 봉우리의 다채로운 면모, 역동적인 느낌을 주려고 했을 뿐이다. 영속성은 영원한 속성을 의미하겠지. 여러 모로 틀렸다. 정답은 ②번!**
- 원관념, 보조관념 계열은 항상 신경쓰자. 이번 9평에서도 배가 언 상황의 주 표현 목적은 바로 의사소통의 제한 아니었던가. 비유나 상징이 나오면 원관념을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 ③ 봉우리를 '동명'을 박차고 '북극'을 받치는 듯한 모습에 빗대어 대상의 웅장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 : 맞는 선지이며 그렇기에 더더욱 ②번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해. 봉우리가 동명을 박차는데, 동명이 봉우리의 보조 관념일 수는 없는 법이지. 이러한 표현의 의도는 웅장함(거대한 느낌)이라고 기억하자. 그 북송아나무 곁에서 그 그늘에서 심심해하는 나무를 이해하는 것은 웅장한 느낌은

- 아니지. 옛 기출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도 던져 봅니다.
- ④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와 같이 행위를 부각하는 대구를 통해 봉우리의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 : '마라'라는 단어에 집착해서 틀리는 우를 범하지 말자. '날거든 뛰디 말든지, 섯거든 솟디 말든지'는 마치 유대종을 보고, '잘생겼으면 귀엽지나 말든지'와 똑같은 표현. 그렇다면 날고 뛰고 섯고 솟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날고 뛰는 점에서 역동적인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지. 해석의 문제이다. 결국은.
- ⑤ '고갯는 듯', '박차는 듯'과 같이 상태나 동작을 보여주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나열을 통해 봉우리의 다채로운 면모를 표현하였다.
- : 직유이면서 구조적 유사성을 지니므로, 그리고 꽃은 상태, 박차는 동작 등을 통해 해당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타당하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에 하늘의 이치[天理]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 ① '혈망봉'을 '천만겹'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한 것이군.
- : 굽히지 않음은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므로 이상적 인간상일 수 있다.
- ② '개심대'에서 '더 괴운 호터 내야 인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 국가를 걱정하는 인식이므로 타당한 선지이다.
- ③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 주는군.
- : <보기>에서는 자연이 인간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 적이 없다. 방향성은 항상 평가원이 자주 내는 포인트이다. 선지는 항상 민감하게 바라볼 것! 정답!
- ④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베'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은,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려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군.
- : 구체적 사물은 사실감을 줄 수 있다. 적절하다.
- ⑤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을 보여 주는군.
- : 지금 이곳, 현실의 공간을 여산이라는 공간보다 중히 여기는 화자의 태도이므로 당연히 적절한 선지이다. <보기>와 선지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사대부들이 중국의 여산을 단지 관념적으로 따르고 그랬던 것 같다.

9평에서도 여러분은 '관념'이라는 워딩을 소화하지 못하여 9 평 38번에서 허우적거렸을 확률이 높다. 사랑, 죽음, 은혜 등 오감 자체로 접할 수 없는 것을 관념이라고 하며 이들은 머릿속 이상 공간으로 접해 보지 않았던 여산을 관념으로서 이상으로 여겼을 확률이 높다.

자, 이제 40번과 같은 작가의 '작품'이면서 '문제 스타일'도 유사한 한 문제 풀어 보자.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년 6월 모평]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뜰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쫓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돌려 두니 가뜰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엘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걸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낫같이 만드소서.

진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처(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내어 임 계신데 쏘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걸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鴛衾)*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썰꼬.

- 정철, 「사미인곡」 -

* 양금 :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입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 할 수 있다.
-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양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관계를 남녀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풀어 봤나? 답은 ④번. 신하가 임금에게 보내는 사랑의 노래인데, 임금의 은혜가 미치는 방향성은 완전히 거꾸로 된 선지라고 볼 수 있지. 항상 화자, 대상의 지향적 방향은 눈여겨 보도록 하자.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 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자, 이제 9평에 나온 고전 운문을 풀어보도록 하자.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늑들은 운는다 한다마는
㉡ 어리고 하얗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1수>

보리밥 풋는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 굿 몫() 의 슬크 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홀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몰내 도하호노라 <제3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닛다 호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뎡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사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호 일도 아니 맞더
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회라 호시도다 <제5수>

강산이 도타 호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프리 갑고자 호야도 희울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즐거움

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이덕무, 「우언(迂言)」-

38.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39.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늑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늑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② '바회 굿 몫'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너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뵈'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④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40.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 ②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42. ㉠을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오랜 만에 비평문이 나와서 많이들 당황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는 마시고, <보기>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좀 긴 <보기>인 비평문부터!

(가)

㉠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 42번 문제 장식

1. 투영(자신의 경험, 정서, 의식 등을 대상에 반영), 2. 수용(외부의 것을 내면으로), 3. 나와 주변의 차이들을 통해)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 39번 문제 장식

1. 2 ⇒ 친화적 관계
3 ⇒ 친화적 or 소원해짐

자, 이제 (나) 작품을 가볍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늑들은 온는다 훈다마는
㉡ 어리고 하얗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1수>
(산수, 바위, 띠집은 자연 속 공간)
(모르는 늑들은 비웃고 있으므로 나와 대비)
(부족한 나는 이것이 만족스럽다. 겸양의 표현)

보리밥 찢는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 곳 물궤 의 슬궤 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적당한 음식 먹고)
(노는 것은 실컷 하고)
(그 외의 남은 속세의 일들은 부럽지 않다.)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피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묻내 도하호노라 <제3수>

(흥취)
(임이 그리워도, 더 좋은 것은 멀리 보이는 산)
(이심진심의 좋은 감정)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호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흐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뎡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삼공, 만승보다 자연이 좋고)
(그런 선택을 한 소부, 허유가 영리했다.)
(자연이 주는 한가로운 흥을 비길 곳이 없다.)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샤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훈 일도 아니 맞더
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회라 호지도다 <제5수>
(내 본성은 게으른 것을 아셔서)
(세속의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다만 다들 사람이 많은 속세가 아닌, 다들 이가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셨다.)

강산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프리 갑고자 호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이 강산은 임금의 은혜로 누운 자리)
(은혜를 갑고자 하나 할 일이 없구나.)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38.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 <제1수>는 '띠집'을 짓고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경험적 성격, <제6수>는 임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자리 잡은 공간, 즉 '은혜'를 받아 위치한 곳. 그러므로 관념적 성격과 연결이 되어 있다. 실제 여러분이 강산이 자연의 대유법이니까 강산이 상위 범주라고 생각해서 실전에서 문제 풀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누군가는 강산에 실제 위치했으니까 '경험적인 성격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항변할 수 있겠으나 자 과연 이것이 모순되는지 보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나의 방에서 나는 문서 작업을 하고 있다. 실제 타다타다하는 공간이면서, 추억이 깃든 공간일 수도 있겠지. 즉, 어떤 공간이 경험적이면서 관념적일 수 있는 것이다. 즉, 실제 위치한 강산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경험적일 수는 있으나,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벗 삼아 산다는 의미로서 볼 때는 관념적인 성격일 수 있고, '은혜'라는 관념적 성격과 결부된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경험적 성격의 공간이다, 관념적 성격의 공간이다가 아니라,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이므로 각각 실제 띠집 짓고 거주하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 임금의 은혜로 속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있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로 추론할 수 있

있어야 했다. 그래도 일단 어려웠으면 나머지 선지에서 확실히 소거할 것. 정답!

-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 보리밥, 풋나물을 먹고 바위 끝 물가에 즐기는 것은 구체적인데, 3수 잔을 들고 먼 산을 바라본다는 것이므로 추상성이 강화되지 않았다.
-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 설의적 표현의 의도 자체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 역사를 부정할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영리함을 칭찬했을 뿐.
-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 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은 기실 42번의 ①번 선지와 연결된다. 즉 무정물인 대상에 대한 호감이다.(선지 상호 협력) 그런데 이러한 먼 뒀에 대한 호감이 '누웠다'라는 표현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오케이? 단순히 강호에 자리잡았다는 표현은 호감의 감각적 구체화로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아! 누웠으니까 감각 아니냐! 사기 아니냐!' 이렇지 말고, 대상에 대한 호감이 임금의 은혜로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표현이므로, 단순히 누웠다는 표현에서 먼 뒀에 대한 호감이 구체화되는 것은 아니다. '3연에 정서적 반응이 있고, 6연에 누웠으니까 시각이지. 그래서 맞지.' 라고 생각했다면, 선지 앞 뒤의 연결적 이해가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다.

위 문제가 어려웠거나 막막했던 사람들은 다음 문제를 풀어 보자.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 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 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며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 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古談)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力士)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

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鬼氣)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의 얘기를 들었다.

[B]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리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었다.

그 집—그들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安住)에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꼭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견디어 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 나란 높은 아마 알 수 없는 놈인가 보다.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어 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서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서씨가 내게 보여 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 데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집으로 옮겨온 다음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잠담 시간도 지나고 ㉤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앉아서 기타를 튕겨 보기 시작했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는

가.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다색(茶色) 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열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 미싱을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 김승옥, 「역사(力士)」 -

23.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김승옥은 「역사」에서 일반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실성을 추구하였다.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밝힌 글에서 그는,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인 것도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했다. 작품 속의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 옮겨 놓기’라는 소재는, 이를테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것이다. 작가는 ‘변형’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작중 상황에 실감을 주는 소설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 ① ‘금고만 한 돌덩이’는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비사실적인 소재이겠군.
- ② ‘동대문’이라는 낯선 배경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느끼는 실감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③ ‘서씨’ 가게의 내력을 제시한 것은 ‘서씨’의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군.
- ④ ‘푸르게 빛나는 조명’은 ‘서씨’의 신성한 면모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이겠군.
- ⑤ ‘나’가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돌덩이 옮겨 놓기’가 사실이 아니라 환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군.

④번이 답이 아니다. 푸르게 빛나는 조명이 있다. 근데 이것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하려는 의도는 아니지. 화려한 조명이 너를 감싸면 너의 모습을 일상적으로 변형하려는 의도는 아니겠지.

반면, ③번 선지. 서씨의 선조 때부터 역사였다라는 것은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점과 합당하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38번에 ⑤번을 쓴 사람들이 이 문제가 헛갈렸을 것이다. 평소에 윗글과 <보기>의 연결성을 기르는 연습을 하도록 하자. 문학 진포배기 ch6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자, 이제 (가)를 참고하는 문제이다.

- 1. 투영(자신의 경험, 정서, 의식 등을 대상에 반영)
- 2. 수용(외부의 것을 내면으로)
- 3. 나와 주변의 상호 대비를 통해

- 1. 2 ⇒ 친화적 관계
- 3 ⇒ 친화적 or 소원해짐

39.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놈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놈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화자의 지향과 속세에 있는 놈들의 지향의 차이가 있으므로 소원해졌다고 볼 수 있지. 주로 차이가 있는데 내 것이 더 우월하면 상대와 소원해지기 쉽지.
- ② ‘바깥 곳 뭉?’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너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너나쁜 일’은 속세의 일이고, 화자는 현재 자연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므로 외부 세계 속세에 대한 거리가 유지된다. 1번 선지 2번 선지 모두 <보기>의 자아와 외부 세계의 지향적 차이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니들은 비웃지만 내가 맞다고 생각해.’, ‘남은 속세의 것들 안 부럽다.’ 등의 서술들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나의 지향이 더 우위에 있으므로 외부 세계와 소원해 질 수 있겠다.
-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뵈’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서술어는 분명 님보다도 더 감흥을 주는 뵈가 기술되어 있지. 하지만 님에 대한 관형어를 볼까? ‘그리던 입이요. 그런다는 것은 긍정의 태도라고 문학 진포배기에서 충분히 얘기한 바가 있다. 2012학년도 구두 한 켄레의 시 풀어 봐라. 틀릴 거다. 이것은 입과의 거리를 드러내는 목적과 의도가 아니요, 오히려 뵈와 그만큼 가깝고 친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이다. 즉 이 선지는 의도성에서도 벗어나 있고, 위 시가 ‘나와 님’ 간의 소원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보기>를 바탕으로 볼 때 소원한 거리는 나와 주변의 차이로 말미암아야 하는데, 나와 입을 비교한 적도 없기에 해당 선지는 완전히 틀려 버렸다. 정답!
- ④ ‘님천’에서의 ‘한홍’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자신이 만족해하는 가치를 임천에 투영하였으므로 가까워지는 거리 조성이 가능하다. 투영과 관련.
-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임금님의 은혜라는 가치를 내면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였다면 이를 친화적 관계로 보아야 마땅하다. 수용 관련.

자, 이제 (다) 작품을 함께 읽어 보자.

(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이덕무, 「우언(迂言)」-

은근히 짜증이 났을 것 같다. 수필은 독서스러운 수필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현재 위치한 곳에 따라 산림에 사는 경우와, 시정에 사는 경우가 등장한다.

그리고, 명리에 마음을 두거나 은거에 마음을 두는 지향점의 차이가 등장한다. 즉,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향 / 상황	산림	시정
은거	큰 즐거움 3~4/100	작은 즐거움 ★(me) = 0~1/100
명리	큰 부끄러움 50/100	작은 부끄러움 100/100

이렇게 2x2 표로 정리하는 방식은 이미 독서 진도배기에서 배운 바가 있다.

[2019학년도 6월 모평]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판정 / 실제	양성	음성
양성	진양성	위양성
음성	위음성	진음성

이렇게 정리할 때, 민감도는, 목표 성분이 실제로는 있는 것(진양+위음) 중에 진양성의 비율임을, 특이도는 목표 성분이 실제로 없는 것(위양+진음) 중에 진음성의 비율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판정 / 실제	양성	음성
양성	<u>진양성</u>	위양성
음성	위음성	<u>진음성</u>

경우의 수가 이렇게 4일 때, 정리하는 방식을 체득한다면 조건부 확률 등 문고자 하는 다음 문제에 적절하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37.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와 B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
>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여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였을 때, 검사 결과 (A)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는 높고, (B)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는 높다.

- | | |
|-------|-----|
| A | B |
| ① 진양성 | 진음성 |
| ② 진양성 | 위음성 |

- ③ 위음성 위음성
- ④ 위음성 진음성
- ⑤ 위음성 위음성

자, 그럼 이제 40번을 여유 있게 보도록 하자.

40.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조화는 여기서 절충인데 이를 논한 적 없다. 답은 ①번

-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 항목 기준을 묻고 있다. 어디에 사느냐(상황),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지향).

지향 / 상황	산림	시정
은거	큰 즐거움 3~4/100	작은 즐거움 ★(me) = 0~1/100
명리	큰 부끄러움 50/100	작은 부끄러움 100/100

-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지향 / 상황	산림	시정
은거	큰 즐거움 3~4/100	작은 즐거움 ★(me) = 0~1/100
명리	큰 부끄러움 50/100	작은 부끄러움 100/100

: '산림'에 사는 사람들을 조건으로 한정하여 색 글자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자.

-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지향 / 상황	산림	시정
은거	큰 즐거움 3~4/100	작은 즐거움 ★(me) = 0~1/100
명리	큰 부끄러움 50/100	작은 부끄러움 100/100

: 두 색 글자 부분을 확인해 보면 쉽게 상황도 지향점도 다름을 알 수 있지.

-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향 / 상황	산림	시정
은거 V	큰 즐거움 3~4/100	작은 즐거움 ★(me) = 0~1/100
명리	큰 부끄러움 50/100	작은 부끄러움 100/100

: 은거는 즐거움, 명리는 부끄러움이 맞다. 그러므로 은거를 더 가치있게 보는 것은 당연하지. 시험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독서 진도배기 ch2, 유대중 프리미엄 ch5 등을 참조하자.

41.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 자신의 처지를 '어리고 하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회피한다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②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 ㉡에서 말한 사람들이 잘 누리지 못하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높은 가치라고 보는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지 이를 잘못된 생각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

-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 ㉠과 ㉡ 모두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보기 어렵다. 해당 구절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가치를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 일반화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 ㉠과 ㉡ 모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의 '어리고 하얌'은 시골에 사는 전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를 '내 분'이라며 화자 자신의 분수에 맞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앞서 초장과 중장에서 자연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 '늙들'에 대한 겸손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역으로 보면, 화자가 자연에서 주어진 삶에 만족한다는 안분지족(安分知足)

의 자세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자신은 느끼고 있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으로 볼 수 있다.

㉠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생각이 멀고,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 모른다는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에 이를 가장 높은 가치로 본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자신은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며 작은 즐거움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 모른다'고 보아도, 역으로 보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누린다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자, 이제 42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 때 <보기>를 다시 읽어와야겠다. 그치?

1. 투영(자신의 경험, 정서, 의식 등을 대상에 반영)
2. 수용(외부의 것을 내면으로)
3. 나와 주변의 상호 대비를 통해

1. 2 ⇒ 친화적 관계
- 3 ⇒ 친화적 or 소원해짐

42. ㉠을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자연 특히 '먼 뒀'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였고 이는 자신의 가치를 투영한 것. 그렇다면 무정물인 자연과는 친화적 관계일 수 있겠다.
-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내가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투영이고 그렇다면 자연과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향 / 상황	산림	시정
은거	큰 즐거움 3~4/100	작은 즐거움 ★(me) = 0~1/100
명리	큰 부끄러움 50/100	작은 부끄러움 100/100

: 나의 가치관들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므로, 나와 주변의 상호 대비이고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다.

- ④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지향 / 상황	산림	시정
은거	큰 즐거움 3~4/100	작은 즐거움 ★(me) = 0~1/100
명리	큰 부끄러움 50/100	작은 부끄러움 100/100

: (나)의 소부, 허유 긍정이므로 오케이. 그럼 그들과 친화적 태도. 그런데, (다)에서 대부분의 사람과 자신이 다르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한 적 없음. 이때 세속의 인물들과 필자는 소원한 관계라 볼 수 있다. 정답!

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하늘이 내려준 뜻이므로 이를 '수용'한 것, 견준 것은 상호 대비이므로 이들의 공통점, 새로운 해석과 의미 부여. 즉 적절한 선지이다.

자, 그럼 비평문 문제를 하나 풀고 가도록 하자.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8학년도 6월 모평]

(가)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주로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지 묘사를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A]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처마 끝 곱게 늘이운 주름에 반월(半月)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곶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곧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蝴蝶)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蛾眉)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골라 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지이다

- 조지훈, 「고풍 의상」 -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래가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B]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짙 짙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 부연(附椽) : 긴 서까래 끝에 덧엮는 네모지고 짧은 서래.
* 호장 : 회장(回裝). 여자 저고리를 색깔 있는 형식으로 꾸민 것.
* 초마 : '치마'의 방언.

26. (가)를 바탕으로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연적 시간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② ㉡은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은 서정시에서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시간의 정확성을 드러낸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은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7.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 전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 준다.
- ②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이라는 현재 위치에서 화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적 현재의 의미를 생성해낸다.
- ③ '옛날처럼 나는'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④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을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떠올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 드러난다.
- ⑤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28.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하여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②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29. [B]를 중심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겉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모습이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모습과 호응하여,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적 화자에게로 이어짐을 보여 주는군.

②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애뜻함을 여운으로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③ '한 줌 뺏가루'의 이미지와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를 연관시켜,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④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과 '팡 팡 얼어붙은 잔등'의 대비를 통하여,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 주셨던 아버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군.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 현재와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를 연결하여,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군.

26.

정답

: ① ㉠은 '봄밤'이라는 자연적 시간을 '두견이 소리'에 빗대어 그 현재적 흐름을 작가의 의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 수많은 소재 중에 두견이를 사용(선택된 소재)하여 봄밤을 드러내었기에 해당 선지는 타당하다. 네 머릿속에는 그냥 봄밤이니까 자연적 시간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봄밤은 자연적인 시간이라면, 두견이 소리로 깊어가는, 작가에 의해 재구성되는 시간일 수 있다.

오답 :

② ㉡은 대상을 곱고 아름다운 것으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가)에서 설명한, 화자의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거나,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건너', '열고'의 표현을 보면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표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이 밤'과 '옛날'을 통합적으로 인식한 것은 맞지만 이는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지는 경우이지 시간의 정확성을 드러낸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흔들어지이다'에서 현재형이 나타나므로, ㉣이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7.

정답 :

② (다)의 1연을 보면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은 화자의 현재 위치가 아니라 '예닐곱 살 적 겨울'이라는 과거에 화자가 위치했던 공간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

① (다)의 1연, 3연의 첫 행에서 호명되고 있는 대상이 '어머님'인 것으로 보아 (다)는 화자가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연에서 추운 겨울날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던 기억을 언급한 것이나 2연에서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를 언급하는 구절을 통해 화자가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내용이 유년 시절 아버지와 겪었던 일임을 알 수 있다. ③ '옛날처럼 나는'을 말하고 있는 시점은 현재이고, 화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경험을 추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3연에서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는 것은 현재이고, 그 풍경을 보며 화자는 과거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이 장면에서 화자의 과거와 현재가 시적 현재로 통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과거에 이미 돌아가신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현재의 시점에서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머릿속에서 모호하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앞의 9평 38번, 39번 문제 중에 하나를 틀렸을 것이다. <보기> 중심으로 사고하는 연습은 필수이다.

28.

정답 : ⑤ (나)의 12행에 말줄임표가 나타나지만 이는 '아미를 숙이고' 있는 여인의 자세와 '호젓'의 이미지와의 조화를 통해 정서적 여운을 함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오답 : ① '곱아라', '파르란'과 같은 시어의 변형을 통해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 거 틀린 사람들은 문학 개념어 학습이 덜 된 것이다. 시어의 본딴말과 변형되었다면

그 목적은 심화 혹은 리듬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② ‘호장저고리’, ‘운해 당혜’, ‘거문곶줄’과 같은 전통적 소재와 ‘아름다운지고’, ‘밝도소이다’, ‘흔들어지이다’와 같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여인의 움직임에 ‘한 마리 호접’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④ ‘파르란 구슬빛’, ‘자춧빛’, ‘하얀’과 같은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9. 감상의 적절성

④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은 화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팽팡 얼어붙은 잔등’은 추위로부터 ‘부드럽고 여린 물살’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는 것으로 내면과 행동의 반대가 아닌 내면과 행동이 일치되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결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것은 자식을 지켜주는 아버지로서 화자의 모습이고,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것은 유년 시절 화자를 보호해 주었던 화자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두 모습의 호응을 통해 아버지에서 화자로 그 마음이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② ‘늘 그런 추억’이란 자식들의 추위를 막아주느라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아버지에 대한 것이고, 이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는 것과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한줌 뺏가루’와 이승의 물로 화신하여 ‘하얗게 얼음으로 엮으려 있’는 강의 이미지는 모두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다는 것은 ‘아버지 가래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기억과 연결된 정서로 자신을 지켜주었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다.

〈유대종의 궁예짓〉

고전 운문은 〈누항사〉, 〈사미인곡〉, 〈속미인곡〉, 〈저곡 전가팔곡〉, 〈시조 다수〉 등이 유력하므로 해당 작품들을 꾸준히 학습하도록 하자.